

교육실습 소감문

되돌아보기



소 속 : 수 학 교 육 과
이 름 :
학 번 :
교육실습장소 : 상 계 중 학 교

교육실습신청

6학기 중간고사가 끝나고 마음이 늘어질 대로 늘어져 있었다. 시험공부를 하느라 잠시 미뤄뒀던 휴식과 여가를 이렇다 할 목적 없이 흐릿하게 즐기던 어느 날 과 선배에게서 지금부터 교육실습을 할 학교를 찾아봐야 할 것이라는 얘기를 듣게 되었다. 간만에 편안함을 느끼고 있던 터라 모든 것들이 귀찮게 느껴졌고 교육실습이 가능한 학교를 찾는 것 또한 예외는 아니었기에, 또한 어느 학교를 가든지 교생은 편하고 즐거울 줄만 알았기에 집에서 가까운 학교에서 교육실습을 할 것을 결정했다. 다행스럽게도 내가 가려던 학교가 선뜻 응해주어 교육실습 장소를 정하지 못한 동기, 후배들을 보며 같은 느낌의 안도감을 여러 번 느낄 수 있었다. 신청서를 가지고 처음 상계중학교에 들른 날, 오며 가며 밖에서만 살짝 보이는 암울한 학교의 모습은 생각했던 것보다 활기찬 공기를 머금고 있음을 느꼈다. 교무실의 위치를 묻는 나에게 정체를 물으며 아저씨라 칭하던 어린 여학생의 얼굴에서도 활기가 느껴졌다. 그렇게 교육실습 담당 지도교사를 만나, 이 것 저 것 필요한 얘기를 들으며 약간은 마음가짐을 고쳐 매었던 것 같다. “우리학교는 FM인거 아시죠?”라는 물음에 ‘알 리가 있나요.’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잘 알고 있다는 말로 체면치레를 해야만 했다. 며칠 지나면 사라질 경각심을 갖게 되었고 역시나 얼마 안 가서 교생=4주간의 휴식이라는 이상한 공식을 마음 속 깊이 믿게 되었다.

사전교육(교생OT)

교육실습을 신청한 4개월 뒤, 동기들과의 스터디 스케줄을 정하던 도중 교육실습이라는 복병을 다시금 떠올렸다. 계획했던 나의 생활 계획표가 한 달 동안은 완벽하게 쓸모없는 것임을 너무 늦게 깨달았다. 어찌되었건 꼭 거쳐야 하는 과정이었고 하던 것을 미뤄 놓을 충분한 핑계가 생겼음에 감춰야 할 기쁨과 낯선 것을 마주해야 하는 약간의 두려움, 4주간의 휴식에 대한 기대감 등이 마음속에서 뒤섞였다. 다만 사전교육을 받기 위해 학교에 들러야 하는 것이 조금 번거로울 뿐이었다. 상계중학교에서의 사전교육과 학부 내에서 실시하는 사전교육의 날짜가 겹쳐 학부에서 실시하는 사전교육은 건너뛰기로 하고 명찰과 편람, 일지를 미리 수령했다. 사전교육을 받으러 도착한 학교에는 앞으로 한 달 간 다른 누구보다도 오랜 시간을 같이 할 동료 교육실습생들이 비장한 얼굴로 교육실습 지도교사가 랩처럼 퍼부어대는 지시사항들을 필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 때 다시 떠올랐다. FM이구나.

선배의 조언

사전교육 후 주말동안 선배들을 만나서 교육실습 때 준비해야할 것들에 대해 물어본 결과, 교생실이 추울 수도 있으니 여분의 옷가지를 챙겨가라는 말과 수업 때는 학생들과 재밌는 이야기를 하며 시간을 때우라는 답이 돌아왔다. 사람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을 믿는다고 했던가. 사전교육 때 들었던 가슴 답답한 말들은 이론에 불과해 보였고 선배에게 들은 사탕 같은 조언들은 실전인 양 느껴졌다.

쓸데없는 이론적 지식보다는 보다 효과적이고 실전적인 지식이 마음에 들었다. 정서적인 방법은 진짜 교사가 돼서 익히면 된다. 4주간 정말 재밌게 놀아보자.

(졸업 후)첫 등교

출근이라는 표현은 아직 낯설다. 동료교육실습생들은 출근이라는 표현을 참 자연스럽게 하던데 나는 그게 조금 어색하다. 나와 학교에서 마주치게 될 교복차림의 학생들과 같은 길을 따라 학교에 들어섰다. 역시 이건 등교라고 부르는게 적절할 듯싶다. 뭘 해야 할지 모르는 교사의 탈을 쓴 학생들. 정체성이 혼란스러운 13명의 교육실습생들은 어색하지만 어색하지 않게 보이려는 필사의 몸부림으로 영양가 없는 질문을 선택했다. 나도 결국 동참했다. 그러던 중 그나마 영양가 있었던 질문은 '정말로 교사가 되고 싶은가? 임용을 볼건가?'하는 것이었다.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교직임용보다는 다른 길을 보고 있었다. 교사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교생기간동안 어떤 차이를 보여줄지 궁금했다.

1교시부터 6교시까지 직무연수를 받으며 탕자탕자 놀며 땅 짚고 헤엄칠 것 같던 현직 교사들에게 얼마나 과중한 업무가 부여되어 있는지,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고된 발장구를 치고 계시는지 어렵פות이 느낄 수 있었다. 만만치 않겠다.

무거운 마음이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종례에 학급지도교사분(이하 '담임선생님')과 함께 우리 반에 들어섰다. 학생들의 빠른 종례를 바라는 것처럼 보이던 눈은 새로운 인물의 등장엔 작은 호기심이 생긴 것처럼 변했다. 담임선생님께서 간단한 자기소개를 부탁하셨고 특별히 준비한 대본이 없는 나는 형식적인 인사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아이들에게 본을 보였다. 사실 그때까지도 계속 많은 것들이 귀찮았던 것 같다. 종례 후 담임선생님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 2주차 수요일부터 수업을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을 들었다. 수업을 참관하고 교수학습지도안을 짜고 수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기에는 시간이 빠듯할 것 같았지만 군대에서 고참들이 시키던 말도 안 되는 것들보다는 훨씬 현실적인 주문이라 생각했다. 기왕 하는 것 제대로 해봐야지.

수업실연 첫 날

어찌어찌 날짜에 맞춰 수업 준비는 끝이 났다. 사실 너무 쉬운 부분을 가르쳐야 했고 교과서 한 쪽 분량으로 45분 수업을 하라는 것에 막막함을 느꼈다. 최대한 풀어서 설명해주기 위해서 대량의 피피티를 제작했다. 노트북을 들고 교실에 입성하였다. 프로젝터에 연결 후 피피티를 화면에 띄우니 학생들이 수학도 피피티를 쓰냐며 놀랬다. 아이들의 주의를 끄는 것에는 성공한 듯. 허나 역시 수학이라는 과목상의 특성이었을까, 담임선생님의 참관 덕에 뻗뻗해진 나의 말투와 행동 때문이었을까. 지루해하는 학생들의 졸린 눈에 실컷 두들겨 맞은, 교실 문을 나서는 나의 발걸음은 패잔병보다도 그것보다도 훨씬 나약했다. 그 날 남은 수업 3개는 어떻게 지나갔는지 기억도 잘 나지 않는다. 아마도 망각이라는 녀석이 힘을 발휘했으리라.

수업실연 중반

피피티 수업을 3차시 더 진행하고 작전을 바꿨다. 피피티는 학생들의 집중력을 되려 분산시키는 것 같았고 그것에 맞춰 수업을 진행하는 나는 마치 로봇과 같아보였다. 내가 원래 생각하던 수학이라는 학문의 가장 완성된 형태의 수업은 판서로 진행된다. 사실 걸다리가 많아질수록 수학의 본질은 흐려지고 논리로 완성되어야 하는 이론들은 그 이론을 이해하는데 사용된 여러 도구들에 가려지기 마련이다. 준비했던 8차시 수업 중 이미 사용된 3차시 수업은 시위를 떠난 활이었고 남은 5차시 수업분량의 모든 준비를 과감히 잘라냈다. 주말 내내 남은 5차시 수업분량의 판서 내용을 A4용지 에 순서대로 적어 보았고 내가 해줄 수 있는 모든 말들의 키워드를 판서 내용 사이사이에 적어 넣었다. 중요한 것은 판서의 내용들과 내가 해야 될 말 사이에 혼란을 유발할 어떠한 요소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과 수업 내용을 군더더기 없이 유기적으로 연결해야 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해간 수업에서 나는 변함없이 약자였고 그들은 강했다. 시시콜콜한 일상의 대화를 하는 그들의 목소리는 핏대를 세워가며 나름의 열변을 토하던 내 목소리를 가뿐히 찍어 눌렀다. 3일간 나와 의 눈치싸움을 끝낸 아이들은 떠들어도 되겠다는 결론을 내린 것 같았고 그들의 가설을 입증이라도 하려는 듯 어느새 야무지게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물샐 틈 없이 준비했다고 생각했다. 확실하게 준비한 만큼 어느 정도 수업에 자신이 있었다. 너무나 빠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사담은 내 계산에 없었다. 물샐 틈이 없었지만 물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을 간과했다.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다. 난 열심히 준비했고 아이들은 보란 듯이 외면했다. 내 생각에 첫 번째로 문제였던 것은 나의 교과서 연구 부족. 흥미를 끌만한 요소를 찾는데 소홀했고 시간 안배에만 너무 집중을 했던 것 같다. 두 번째로 문제였던 것은 수준별 수업의 부재. 한 반 안에 곱셈을 못하는 아이와 고등학교 2학년 수학을 선행학습 하는 아이가 같은 수학 수업을 듣는다. 그래서 수업의 난이도를 중간정도로 맞추는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되면 학업 성취정도가 낮은 아이들은 수업을 따라갈 수 없으니 수업에 집중하지 못한다. 학업 성취정도가 높은 아이들은 수업이 너무 쉽다고 애기하기도 하고 이따 문제를 풀어서 무얼 하나며 어려운 문제를 갖다 바치라한다. 수업시간에 조용히 시키기 위하여 아이들을 주의를 집중시키는 것도 좋지만 애초에 수준에 맞는 교육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아이들의 수준에 맞지도 않은 내용으로 수업에 집중시키려 흥미위주의 수업계획을 짜는 것 자체가 낭비다. 세 번째로 문제였던 것은 학원이다. 학원이 학생들의 수준 차의 심화에 일조하는 것도 물론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학생들의 방과 후 자유 시간을 뺏는다는데 있다. 사춘기 아이들은 친구들이 가장 소중한 존재이고 그들과 함께라면 전혀 의미 없는 말에도 배꼽이 달아나곤 한다. 매일매일 친구들과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학교수업이 끝나도 남은 시간을 온전히 친구들과 보낼 수 없다. 학원 강의, 학원 숙제가 도려내고 남은 시간은 한 숨 돌리는데 고스란히 사용된다. 그렇게 혹사당한 아이들이 학교는 조금이라도 쉬는 곳이라 생각하는 듯 보였다.

마지막 수업

그 뒤로는 수업을 수정할 시간적 여유도 없었다. 어찌어찌 시간은 지나 각 반의 마지막 수업을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됐다. 내 담임반인 2학년 9반은 실습 마지막 날 따로 인사를 할 계획이었고 나머지 7반, 8반, 10반에서는 마지막 수업에 무슨 말을 해주는 것이 가장 좋을지 한참을 생각해 보았다. 내가 생각했던 많은 말들은 뒤로하고 고민 끝에 내가 건넨 얘기는 몸 건강히 잘 지내고 고민 생기면 연락해라였다.

송별

며칠간 아이들을 위해 편지를 썼다. 편지지에 직접 쓰다가 혹시나 잘 못 쓰지 않을까 싶어 한글 작업을 먼저 한 뒤 나중에 편지지에 옮기는 작업을 했다. 번거로웠지만 아이들이 나의 수고를 알아주기라도 하듯 너무나 고마워 해주어 피로가 싹 가셨다. 짧은 조례 시간을 이용하여 케익을 썰고 과자를 나누어 먹고 칠판에 남겨진 아이들의 사탕발림을 읽었다. 그리고 그 모든 장면을 사진에 담았다. 아이들과의 헤어짐에 눈물은 나지 않았다. 두 번째 교생을 떠나보내는 아이들이나 나나 조만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눈치였다. 아이들과 헤어지고 교생실에 남아 있는 짐들을 챙겨 교문 밖으로 나오면서 ‘4주 동안 잘 놀았나?’ 생각해봤다. 잘 놀았다. 그리고 많이 배웠다. 담임선생님께도, 다른 선생님들께도, 그리고 아이들로부터도 무언가 많이 배우게 된 것 같다. 그게 무어라고 한 단어로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아마도 나에게 굉장히 필요한 것들이 아니었나 어렵풋하게 짐작해본다.